

광주시·기관 등과 2000억대 합작법인 공장 현대차 연구개발 차종 연간 10만여대 생산

현대차 광주 투자 어떻게 이뤄지나

직·간접 고용인원 1만여명 넘어

현대차 22년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그 외 기관·기업 등이 투자해 설립하는 자동차 공장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된다. 우선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성을 갖춘 신규 차종'의 생산을 합작법인이 설립할 공장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는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에 해당돼 결렬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고임금, 노사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에 나섰던 현대차의 유턴으로, 광주에 들어설 합작법인의 성공 여부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 지역경제, 노동계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의 투자 결정·22년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 착공=현재까지 알려진 현대차를 비롯해 광주시, 그 외 기관 및 기업 등의 투자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를 자본금으로 해 설립된 합작법인이 공장을 짓고 현대차가 연구개발한 차종을 위탁받아 10만대를 생산하게 된다. 직·간접 고용 인원은 1만~1만2000명 수준이다.

산업구조가 열악한 광주에서 '메이드 인 광주' 자동차가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는 더 없는 단비가 되고, 청년과 퇴직 숙련공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자동차 부품업체 등도 직접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광주 자동차 생산에 양적 팽창도 기대된다.

광주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연간 62만대로 울산 150만대에 이어 국내 2위다. 광주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이른다. 여기에 현대차가 투자하는 완성차 공장이 더해지면 생산 다각화와

양적 성장이 동시에 기대된다.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대구, 전북, 제주, 울산과의 경쟁에서도 차별화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적정임금과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도요타, 포드, GM 등 수입차와의 글로벌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 적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향후 협상이 중요=시는 지난 1일부터 사실상의 협상에 착수했다. 이 협상에서는 현대차의 투자 규모, 위탁 차종 및 가격, 규모, 기간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대차가 투자방향서에서 '경제성을 갖춘 신규 차종'이라고 한 만큼 합작법인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종의 생산을 위탁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과 기간이 문제다. 위탁가격을 최대한 보장받고, 기간을 늘려야 직접 투자하는 시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광주공장의 위탁 규모가 늘면 울산공장 등의 물량이 현 상태로 유지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 내부에서의 교통 정리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됐고, 합작법인의 설립방식과 투자 규모, 생산 차종과 규모, 임금수준 등은 모두 정해진 바 없고, 추후 세밀한 논의를 거쳐 하나 둘 밀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라며 "중요한 건 노사합의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가 힘을 보태 기업을 위한 환경,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월 7일 자동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울투자유치 설명회, 3월 7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험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결의문 채택, 3월 12일 광주 투자유치형 제시와 레터 발송, 5월 28일 광주시 참여 합작방식 독립법인 신설 검토 발표 등 투자유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결실을 맺은 현대자동차의 광주 투자 청사진이 담긴 '사업 참여 의향서'를 공개하고 있다. /나명주 mjna@kwangju.co.kr

일각 우려 불구 임기 시작과 함께 꾀꾀한 추진 현대차 투자 이끌어내 임기말 광주에 큰 선물

윤장현 시장과 '광주형 일자리' 스토리

현대자동차가 광주 투자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다. 시민단체 출신인 윤 시장이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이 정책은 노사만이 아니라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다.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임금을 기존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는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정하고 경영에 있어 공동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적정임금(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 구현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가 모델이 됐다. 독일 폭스바겐사는 지난 2001년 대량 실업상태를 겪으면서 노사합의로 '아우토(AUTO) 5000'이라는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해 5000명의 실업자를 채용했다. 이들의 임금은 본사 직원들보다 20% 가량 적었지만, 주 정부의 노력으로 고용이 유지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합작법인에 투자하고, 노동자에 대한 주거·교육·의료 등을 지원한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임기가 끝나갈 때까지 큰 성과가 없자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윤 시장은 성

공을 자신하며 밀어부쳤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는 물론 대학,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 노·사·민·정이 참여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에 광주형 일자리의 개념과 철학을 설파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현대차에서 인재개발원장을 지낸 정찬용 전 인사수석을 영입해 지난 2014년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에 앉히고, 올 초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아차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병규 경제부시장을 임명하며,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현대차 노조에서 이번 현대차 투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박 부시장이 이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시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도 "정찬용 위원장과 노동계에 각별히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막판 시 감사위원회의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 기부금 감사, 관련 간부 직원 수사의뢰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윤 시장은 현대차 투자를 이끌어낸 전략산업본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실무진을 격려했다.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고, (현대차 투자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광주형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뒷받침했다. 향후 '광주형 일자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당 존립 기반' 광주·전남에 화력 집중

바른미래·평화당 텃밭 사수 총력전

당 지도부서 보좌관까지 총출동

2년후 총선 겨냥 득표율 올리기

정의당도 집중...선전 여부 주목

광주를 '정치적 텃밭'으로 여기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6·13 지방선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에 완패할 경우 사실상 지역적 근거지인 호남을 잃을 수 있는데, 2년 뒤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모든 조직과 역량을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독주 속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후보들이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일제히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와 텃밭 사수에 나섰다.

광주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박주선(동남구) 공동대표와 김동철(광산구) 원내대표, 권은희(광산구) 최고위원 등 3명이,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은 장병완(동남구) 원내대표, 천정배(서구) 의원, 김경진(북구) 선대위원장, 최경환(북구) 시장위원장 등 4명이다. 전남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주승용(여수시) 도당위원장 1명이 있고, 평화당은 박지원(목포)·황주홍(고흥

·보성·장흥·강진)·이용주(여수시갑)·정인화(광양·곡성·구례)·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6명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자신의 연고지인 광주에서 광역·기초 의원들의 선거를 돕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광주지역 선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광주 동구와 광산을 전락지로 보고, 박 대표가 동구에 상주하며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등 당 지도부가 두 지역을 주축으로 표몰이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지역적 근거지인 호남 표심 공략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까지 가세해 주말과 휴일 호남지역을 돌며 저인망식 집중 유세를 펼쳤다.

조배숙 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3일 광주와 전남, 전북을 오가며 살인적인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평화당은 오는 5일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당의 전락 지역인 광주와 목포, 영암, 무안 지역 후보자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필수 인력 1~2명만을 남겨둔 채 보좌진 전 인력을 선거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선거 기간 내내 지역에 상주하면서 선거를 지원중이다.

양 당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지방선거에 사활을 건 배경에는 차질 당의 근간인 '호남 텃밭'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외형은 지방선거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자신들의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총선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선배에 패하더라도 의미있는 득표율을 올리야만 지역

구에서 체면이 선다는 점도 이들이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모두 광주와 전남으로 내려와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광주지역 옛 국민의당 득표율이 53%였는데 이 표심을 집중 공략해 당선자를 내고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최근 결혼을 했는데도 신혼여행을 미루고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광주지역 2명 이상의 구청장을 배출할 수도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옛 국민의당에서 갈라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민주당과의 진검 승부에도 고심하고 있지만, 서로 간 자존심 대결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창당된 옛 국민의당은 그해 4월 13일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8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하며 호남 맹주로 등극했다. 하지만 2년 만인 지난 2월 각기 단 살림을 차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로 사활을 건 승부를 펼쳐야 하는 알곡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정의당도 진보 표심층이 많은 호남에 유세를 집중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호남지역 교두보 확보에 신경을 쏟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등이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을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들은 "여당 독주를 막을 대안 정당으로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F 2018
GWANGJU
FRINGE festival

각주 프린지 페스티벌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Gwangju
Fringe Festival

-광주문화 절정체험! 토요일문화난장-

4.7~11.24 [매주 토요일]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

6월 행사 시간 : 17:00~21:00 [행사시간은 매일 변동가능]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Tel.062)223-0410
fringefestival.kr

<https://blog.naver.com/uins5598> @2016GJFF @gwansujfringe

주요 공연 프로그램

마임 / 퍼포먼스 / 년버벌 쇼
마술 / 코믹공연 / 버스킹

주요 체험 프로그램

명화의상 코스튬
나는 프린지 매니아
공리하는 청년들 / 키즈작가